

## 【제 2 세션】

한일 국제심포지엄 「정부간 합의 이후의 위안부문제」 메모

기시 도시미쓰(岸俊光、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 1. 위안부 문제와 나

- 2004 ~ 05 년 도쿄대 「『위안부』 문제를 통해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생각한다  
(『慰安婦』問題を通して人間と歴史と社会を考える)」 수업 참가
- 2007 년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교수와의 공저  
『위안부 문제라는 물음(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을 출판
- 2015 년 마이니치 신문 연재 「『속죄』라는 물음(『償い』という問い)」 (27 회)
- 2016 년 마이니치 신문 르포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현장  
(元慰安婦 支援事業の現場)」  
마이니치 신문 「조선인 체포 미심문조서발견  
(朝鮮人捕虜 米尋問調書発見)」

### 2. 일본국내의 「한일합의」 평가

- 합의 다음날 (2015년 12월 29일) 재(在)도쿄 신문 사설의 표제
  - 아사히 「역사를 넘어 한일의 전진을(歴史を越え日韓の前進を)」
  - 마이니치 「한일합의를 환영한다(日韓の合意を歓迎する)」
  - 요미우리 「한국은 『불가역적해결』을 지켜라 소녀상의 철거도 중요한 시금석이다  
(韓国は『不可逆的解決』を守れ 少女像の撤去も重要な試金石だ)」
  - 닛케이 「『위안부』 결착의 추세로 한일재구축을  
(『慰安婦』決着弾みに日韓再構築を)」
  - 산케이 「정말로 이것으로 최종결착인가 한국측의 약속이행을 주시한다  
(本当にこれで最終決着か 韓国側の約束履行を注視する)」
  - 도쿄 「『타결』의 무게를 배웠다(『妥結』の重さを学んだ)」
- 한국 「화해·치유 재단」 설립 다음날 (2016년 7월 29일) 재 도쿄 신문 사설의 표제
  - 아사히 「시작에 불과하다(緒に就いたにすぎない)」
  - 마이니치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ようやくここまで来た)」
  - 요미우리 없음
  - 닛케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착실한 이행을

(元慰安婦支援の着実な履行を)」

산케이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다(韓国が誠意をみせる番だ)」 ( 28 일 )  
도쿄 「해결까지 한일은 함께(解決まで日韓は共に)」

• 여론 조사

▽아사히 ( 2016 년 1 월 19 일 )

합의 「평가한다」 63%、 「평가하지 않는다」 19%  
군의 관여 인정 「평가한다」 60%、 「평가하지 않는다」 23%  
한국이 만드는 단체에 대한 10 억엔 지출 「타당하다」 35%、  
「타당하지 않다」 49%  
합의는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4%、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1%

▽마이니치 ( 2016 년 2 월 1 일 )

합의 「평가한다」 65%、 「평가하지 않는다」 25%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렵다」 72%、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19%

▽요미우리 ( 2016 년 1 월 11 일 )

합의 「평가한다」 49%、 「평가하지 않는다」 36%、 「대답 없음」 19%  
앞으로 한일관계는 「개선」 50%、 「개선되지 않는다」 38%、 「대답 없음」 12%

▽한국 갤럽 ( 2016 년 1 월 8 일 )

합의 「평가한다」 26%、 「평가하지 않는다」 54%  
합의 「재교섭을 해야한다」 58%、 「재교섭을 하면 안된다」 28%  
소녀상 「합의내용을 일본이 이행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이전은 안된다」 72%  
「일본이 이행하면 이전해도 된다」 17%

▽일본의 언론 NPO 와 한국 · 동아시아 연구원 ( 2016 년 6 ~ 7 월 )

일본 합의 「평가한다」 47.9%、 「평가하지 않는다」 20.9%  
한국 합의 「평가한다」 28.1%、 「평가하지 않는다」 37.6%

3. 한일 교섭을 돌아본다

• 고노 담화에서 아시아 여성 기금까지 ( 1993 ~ 2002 년 )

1993 년 8 월 4 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1995 년 8 월 15 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 담화.

1997 년 1 월 ~ 2002 년 5 월, 아시아 여성기금이 한국에서 「속죄 사업(償い事業)」을 실시. 총리의 사죄 편지에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로 구성된 4 명의 수상이 서명.

·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의 교섭 (2011~2012년)

2011년 12월 18일 노다 요시히코 수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한일정상회담.

2012년 3월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차관이 방한하여, 「사사에 안」을 제시.

2012년 4월 사이토 쓰요시(齋藤勲) 관방 부장관이 방한하여 수상 친서를 전달.

2012년 10월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과 이동관 대통령 특사가 도쿄에서 회담.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교섭 (2013~2015년)

2013년 10월 16일 산케이 신문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정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청취보고서를 입수하여, 부실한 보고서였다고 보도.

2014년 2월 27일 마이니치 신문이 1996~2002년에 3국 1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 실시 내역에 대해 한국 60명▽대만 13명▽필리핀 211명▽네덜란드 79명이라고 보도. 02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는 207명으로, 사업을 받아들인 사람은 3할에 미치지 못함. 또한 기금의 수입 내역은, 「속죄금(償い金)」 모금 5억 6500만엔▽의료·복지지원용 정부거출금 11억 2000만엔▽사무 사업 경비등 정부 보조금 35억 500만엔▽총액 51억 9000만엔. 약 9할이 정부 지출.

2014년 6월 2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을 포함한 아시아 연대 회의가 일본정부 및 군이군 시설로써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던 점,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성노예」가 되었던 점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하는 제언을 행함.

2014년 6월 20일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보고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협의 경위~고노 담화 작성부터 아시아 여성 기금까지~」를 공표.

2014년 8월 5일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보도를 검증.

2015년 8월 6일 20세기를 돌아보며 21세기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위한 전문가 간담회(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아베 신조 수상에게 보고서를 제출.

2015년 8월 14일 아베수상, 전후 70년 담화.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2016년 7월 28일 한국 「화해·치유 재단」 설립

4. 남겨진 과제

- 「화해·치유」 재단에 혼을 불어넣기.
-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는 존재하는가.
- 소녀상 문제.
- 식민지 지배의 책임 등, 과거를 물려받아 역사연구의 깊이를 더한다.
- 아시아 여성 기금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상.

번역 : 이선형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한국학연구부문 RA)